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 공식 출범

당신의 한 끼로
北 결핵 어린이
도움시다



결핵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가 8일 광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박광태 시장과 이윤구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강박원 시의회 의장, 조국현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참석자들이 발대식 직후 박수를 치고 있다.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 끼 밥값을 아껴 결핵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의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가 8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시와 자치구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끼 안먹기 운동’을 벌여 모은 3천여만원을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8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 전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북한 결핵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

광주시 지자체중 첫 결성...800명 참석 발대식

본격 모금 활동...市·자치구·교육청 성금 전달

윤구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강박원 시의회 의장, 조국현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장, 구청장 및 기관·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운동본부는 조국현 본부장을 비롯해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행정기관 대표 등 모두 3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시민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한 끼 안먹기운동’을 벌여 모은 3천여만원의 성금을, 시교육청과 각급 기관·단체 대표들은 2천여만원을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조국현 본부장은 선언문을 통해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해온 광주정신을 살려 한 가정에서 3만원을 모금하면 결핵환자 한 사람에게 6개월분의 치료약과 영양제를 지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북한에는 30여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결핵환자가 120여만명에 달하지만 치료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원 계좌는 광주은행 8000-0004-1122(예금주 (사)세계결핵제료운동본부), ARS 전화 030-300-0022(1통화에 2천원).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1일부터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최신 치의학 정보·시술 ‘한눈에’

김대중컨벤션 센터서...전국서 4천여명 참가

‘2008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HODEX)’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HODEX는 호남지역 치과인들의 학술증진과 교류확대를 위해 마련된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치과 종합학술대회로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 치과사회가 ‘Come and see! 백문(百聞)이 불어일견(不如一見)’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남·북 치과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배 웅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과 고정석 부회장이 대회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번 HODEX 2008은 11일 오후 5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치과의사·치과전문의대학원생과 치과대학생·치위생사·치기공사·치과기자재 업체 등 치과계 종사자 4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학술강좌에서는 임플란트와 근관치료 시술에 관한 정보를 생생한 라이브로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Hands-on’ 코스도 마련했다. 또한 심미보철에 관한 강연과 함께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를 위한 다양한 강의로 준비돼 호남지역 치과인들에게 종합적인 학술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HODEX 2008에는 4개 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협조를 받아 호남지역 4개 치과대학 등 재학생들도 참여, 현장 학습을 통해 생생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대회기간 중에는 80여개가 넘는 국내외 치과기자재 업체가 참여한 치과 기자재 전시회가 마련돼 각종 치의학 분야의 연구성과 및 최신 치과기자재 등 향상된 의학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대회를 총괄하는 배 웅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다양한 치과기자재 등의 전시와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으로 치과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의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신 치의학 정보를 교환하는 호남권 최대의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난해 열린 ‘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치과의료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제공>

인권위 광주사무소 인권 향상 큰 몫

12일 개소 3주년...상담·안내·진정 1만325건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의 인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오는 12일 개소 3주년을 맞는다.

8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개소한 이후 3년 동안 이뤄진 상담·안내·진정 접수 건

수는 모두 1만325건에 달하고 있다.

2005년 364건이었던 상담·진정 접수 건은 2007년에는 3천377건에 달했다. 올 9월 말 현재까지는 4천028건

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관할 7개 교정시설에 대한 진정사

건 조사는 ▲2005년 77건 ▲2006년 182건 ▲2007년 37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인권 상담도 ▲2005년 68건 ▲2006년 509건 ▲2007년 796건 ▲올 9월 말 822건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면전 진정 처리일수가 2005년 112건에 평균 10.1일이 소요되던 것이 지난해 863건에 5.6일 소요되는 등 눈에 띄게 단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하철 무료 서비스 인기 ‘쌍쌍’ 미용·진료 등 이용객 폭주

광주 지하철이 고객 만족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펼쳐온 이·미용, 사진 촬영, 진료, 자전거 대여, 예술공연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에 따르면 금남로4가역과 도산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이·미용서비스는 개소 초기부터 대기번호표를 발부발아야 할 정도로 인

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지하철 무료 대여 자전거는 현재 13개역에서 123대를 운영 중인데 하루 평균 60% 이상 대여되고 있다.

18개 단체, 250여명의 공영 자원봉사자가 상무역과 남광주역, 금남로4가역 등에서 연중 무료로 펼치고 있는 전기공연도 이용객들의 호응이 높아 ‘문화지하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사측은 이와 함께 지난달 남광주역에 박재완 사진작가와 함께 ‘행복나눔 무료 사진관’을 개설,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사진을 무료 촬영해주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동서하나로한방병원과 손잡고 지하철 금남로4가역에서 매일 한 차례씩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북구 ‘지방의제’ 우수기관

광주시 북구는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지방의제 21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8일 밝혔다.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주민·시민단체·기업·행정이 연대체계를 구축해 ‘살고 싶은 푸른 북구 21 실천사업’ ‘담장 허물어 화단 만들기’ ‘산책로 생태문화 네트워크 조성’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환경은 물론 주민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dvertisement for 'National Security' (국제보청기) with images of the dev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and Jeonnam.

Advertisement for 'Pelliss Tower' (펠리스 타워) featuring a large building image and details about a 'Pelliss Tower' event or service.

Advertisement for furniture stores offering 50% discounts on 'France' and 'Italy' style furniture, including images of desks and bookshelves.